학교법인 창성학원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8	0

1. 회의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16:10-17:50

2. 회의장소 : 법인사무국 회의실

3. 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5월 3일(월)

4. 임원 출석현황

○참석 임원

- 이사(8인) : 곽영교, 김두헌, 박성옥, 신현동, 심재명, 안근식, 오연주, 임정섭

○불참 임원

- 감사(2인) : 정상민, 황인상

○배석자(이사회 진행)

- 법인사무국(3인) : 성대용 사무국장, 백순일 총무처장, 하헌진 총무과장

5. 회의안건

가. 보고안건

▫제1호: 2020학년도 학교법인 창성학원 및 산하학교 회계(결산)감사 결과보고

나. 의결안건

▫제1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안)
▫제2호: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신규임용(안)
▫제3호: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4호: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호: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6호: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1학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호: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 제10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제11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2호: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제13호: 대덕대학교 학교비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 제14호: 학교법인 창성학원 일반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 제15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일반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6호: 수익용 건물 임차인 장기미수 임대료 대손 처리(안)
▫ 제17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수익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다. 기타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라. 보고사항
▫ 제1호: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 제2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 제3호: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 제4호: 대덕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정곡관 승강기) 증자 보고
▫ 제5호: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보고

6. 회의 진행 내용

가. 성원보고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함.

나. 개회선언
의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함.

다. 보고안건
▫ **제1호: 2020학년도 학교법인 창성학원 및 산하학교 회계(결산) 감사 결과보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창성학원 및 산하학교 회계(결산)감사 결과를 서면 보고함.

라. 의결안건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안)입니다.
의장이 제1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송성환 교무팀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이사	심재명	이사	은 연수	이사	

(이사 안근식) 명예퇴직 대상자는 12명이죠. 더 이상 명예퇴직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향후 법인과 협의해서 추가 명예퇴직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2022년 2월 말이나 추후에 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퇴직을 신청받을 때에는 향후 교원 수급을 고려해서 지난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이사 안근식) 앞으로 더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 곽영교) 조기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조기희망퇴직은 명예퇴직 대상은 20년 미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사 곽영교)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똑같습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은 명예퇴직금 플러스 부가금이고 조기희망퇴직하시 분들은 부가금만 있습니다.

(이사 곽영교) (조기희망퇴직 신청자는) 부가금만 있고 부가금 조건은 똑같고요?

(송성환 교무팀장) 네, 부가금 조건은 같습니다.

(이사 곽영교)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또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교직원들만 일부 되었죠?

(송성환 교무팀장) 직원들만 (명예퇴직) 되었습니다.

(이사 곽영교) 작년에 이분들을 안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지난번 이사회 때 저희가 제청을 올렸습니다.

(이사 곽영교) 지난번 말고 작년에? 이분들은 작년에 퇴직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송성환 교무팀장) 원래 2021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에 올렸다가 (2021년 4월 1일자)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서) 미

이사	서울 2021.12.28	이사	오연주	이사	

루자고 하셔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사 신현동) 그때 일부만 올렸었죠.

(송성환 교무팀장) 그때는 2021년 2월 28일자로 신청하신 분들만 올렸고요. 이번에는 2021년 8월 31일자 분들과 같이 올렸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교원확보율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교원들이 2021년 2월말에 나가려고 했는데, 다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 당시 신임교수를 뽑는 것을 고려해서 뽑는다고 보고 6명인가를 2월말로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8월말에 해주는 거로. 본인들의 동의하에 지금 올라온 거죠?

(송성환 교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 곽영교) 우리가 작년도에 대학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정말 치열한 경쟁하에서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일부 직원은 됐고 이제 교수님들 명예퇴직을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 상황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 개입했던 때와 많이 변했어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이 변한측면이 있고 장학금 문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부가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인, 그 당시 조건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부가금을 줘도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획처장 및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한영철 기획처장) 네.

(이사 곽영교) 그런 저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영철 기획처장)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있기는 합니다. 이사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올해의 재정, 내년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명예퇴직자 12명에게 나가는 금액이 28억 9천만원이고 조기희망퇴직자는 4억 5천만원. 전체 33억 4천만원 정도가 명예퇴직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나갈 예정입니다.

(이사 곽영교) 그래서 명예퇴직의 건에는 결국에 뒤따라가야 할 부분이 구조조정과 같이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에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폐과가 될 것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교직원들도 올해부터는 예를

이사	심재명	이사	은연주	이사	

들어 임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난번 설명을 듣기로는 70% 정도까지도 감내할 정도에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수 할 것을 예상하고 그런 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대학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으로 올라오거나하는 계획이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런 교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고통감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뤄져야 명예퇴직이 자연스럽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철 기획처장)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시행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절감 또 대학의 기타, 학과 운영비라든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안이 빨리는 만들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사 곽영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온 대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면 좋은데, 명예퇴직을 원하시는 분 명예퇴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고 또 이번에 장학금까지도 추가적으로 대략 50~60억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가야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또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예상한대로 안 되고 있고 고통감수도 그런 안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요. 만든다고는 하지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에 제가 타 대학 사례를 보니까. 우리 부가금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고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 신현동) 이 부가금을 타 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비슷하게 준 사례가 있나요?

(송성환 교무팀장)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자 지난번 이사회 때 의결을 해서...

(이사 신현동) 아니, 그것을 의결한 바는 없고 언제 의결을 했어요. 이 부가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다른 대학에서 있는지?

의장(이사장 심재명) 잠깐만요. 이것은 송영필 전 부총장이 교무처장할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 거에요.

(송성환 교무팀장) 제가 알기에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신현동) 승인 받은 것 있어요?

이사	심재명	이사	은주	이사	

(간사 백순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과 조기희망퇴직은 정관과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개정을 이사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규정에는 명예퇴직 수당이외에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관과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대학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1차 이사님들께 대략 이 정도에 수요조사가 됐고 이분들이 향후에 나갈 때 부가금이 이정도 된다. 라고 안건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께 송영필 전 부총장님께서 법인에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명예퇴직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 호봉자들이 일정부분 나가주셔야 신구조화가 되서 젊은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사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이사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작년과 올해 재정상황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분들은 정관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대학 총장께서 명예퇴직의 신청을 받아서 이사회까지, 지난번 이사회 때 말씀하셨던 상황을 이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교원확보율 때문에 부득이 6개월 늦춰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은 학교를 믿고 학교를 신뢰하고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사 신현동) 아니, 그것을 의결 했나 안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사 백순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가금에 대해 이사님들께 이사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사 곽영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는 것이겠지요. 의결이 됐다면 다시 의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명예퇴직은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드려 하는 것은 맞는데, 조건에 부가금 문제가 조금 과다하다 라는 일부분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학 측에서 안을 만들고 구조조정안과 장학금 지급하는 안 등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면 어떨까요?

(이사 오연주)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다 결정 나서 해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교원)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총장님이 뭘 하나 써드리고 그러면서 연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것에 대해 계산을 다시 한다 라고 하면 학교인데, 총장님이 써드려 가면서까지 시기를 연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준비하고 있었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교수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이사 곽영교) 그렇죠. 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료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될지도 모르겠고요. 명예퇴직은 아까 30몇억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지. 약속한대로 무조건 강행한다. 이것도 뭐 하게 된다면 하는 거지요.

이사	심재명	이사	P 연주	이사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런 자료도 보고 그러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8월 3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사회가 몇 차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최소한 2차례가 열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달 달이 열려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거를 해줘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 오연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도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도 명예퇴직을 세 번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서 더 이상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제가 제일먼저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월급 많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그 때 엄두를 못내 하셨어요. 대부분들이 이걸 왜해야 하는 거냐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학교에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으나, 빠른 시일에 어떤 면에서 학교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당장 돈이 많이 나가지만, 3~5년 내다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한분이 나가시면 세분의 인건비가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되고 또 그 때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계산했던 것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때도 학교가 교수한테 한 약속인데, 당황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사람을 못 뽑아서 늦춰가지고 뭘 써주고 그 때도 참 학교가 위신이 안 섰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낄지. 마음 상하는 것은 둘째 치고 학교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사 곽영교) 저도 동의하고요. 약속을 지키고 싶고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달라진게 뭐가 달라졌냐면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정도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게 될 상황이 오게 된 건데, 그러고도 이 조건을 가지고 해도 되겠는지. 저는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에요. 이대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대학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100억이 더들어갈지 150억이 더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약속한대로 한다. 학교는 집안은 말하자면 망해가는 입장인데도 옛날 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쓰던 것도 약속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16:30경 김두헌 이사가 이사회 회의실에 입실함.>

(이사 오연주) 네, 저희도 하다가 돈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세 번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고 있어요.

(이사 곽영교)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이 작년에 생각한대로 70%정도 월급을 받겠다 라는

이사	신재민	이사	오연주	이사	곽영교

각오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사 오연주) 그러나 그것은 이번 부분과 별개로 다음에 진행을...

(이사 곽영교)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줄 때에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거든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런데 이분들을 거기에다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사 박성옥) 보통 명예퇴직은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했어요. 보통 1년, 이번 한번, 두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명예퇴직 제도를 없애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 한시적으로 장려를 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인데, 곽 이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상황의 경우가 작년의 그 상황과 맞물려졌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가 바뀐게 아니라 학교의 의지로 늦춰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이 경우를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가혹하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약속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명예퇴직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게 된다면 조건이 달라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고 이분들은 애매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일부러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분들에게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졌으니 당신들은 조정을 해야된다. 나머지 임금70% 등 돈이나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 차라리 조건부로 하고 명예퇴직은 그 조건이 있을 때 명예퇴직 제도를 신설한다. 이런 개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지금 여기에 그 조건을 보고 구조조정 대상에 학과 교수가 나간다고 함으로서 구조조정 된대가 많죠?

(송성환 교무팀장) 네, 있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실제 조건이 바뀐다면 그 사람이 대학을 상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성환 교무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신현동) 하여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대학 이런 예가 있는지 몇억씩 주고 내보낸 예가 있는지.

(이사 오연주) 저희 대학은 두배반 정도. 5년 더 근무하시면 5년 플러스 계산해서 1.5배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정도를 지급했어요.

(이사 신현동)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사 오연주) 아니요.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이사 신현동) 지금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서 신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도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입학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대로 앞으로 장학금을 얼마나 몇%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몇십억의 돈을 그런데 써야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성대용 사무국장) 이사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네, 발언하십시오.

(성대용 사무국장) 지금 장학금 얘기를 하시는데 적립금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업무상 배임에 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대학에 지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적립금에서 지급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라 것을 생각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송영필 전 부총장 겸 교무처장으로 있었을 때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 조건을 보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과 구조조정도 하고 다 학교에서 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도와주신 분들인데, 이제 와서 또 금액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책임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 2월말에 나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사 곽영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두 분에 오연주 이사님이나,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약속한대로 안 해주고 변경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억울하게 비춰질 측면이 있고 공공기관이니까 한번 이야기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의결해준 상황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보고를 받은 상황이고 이제 실제로 의결하는 이사님들에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학교 사정은 변해있고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분들에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을, 이분들도 고통을 부담하고 가야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죠. 이분들 명예퇴직은 시켜드리되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한번 면밀하게 더 살펴보자. 직원들 고통 분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장학금이 적립금으로 안 된다면 어떤 장학금 지급 대책 능력이 있는지도 보고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가는지도 봐가면서 시간이 다소 있으니, 그것을 지켜봐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하자. 변경하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한번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쉬운데, 그렇지만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요.

(이사 오연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도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정확하게 계산했죠.

(이사 곽영교) 아니, 그때는 그게 계산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올해 대학의 사정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사 오연주)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도 써드리고 총장님 이름으로 뭘 써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실까? 걱정스러워요. 이 문제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요번에는 결정한 일이니까 그대로 하고 앞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안할 것이면, 어느 정도로 그때는 부가금을 낮출 수는 있겠죠. 하고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앞으로 일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결정해야지만, 이미 하고 연기했던, 그때 편지까지 써주면서 연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대용 사무국장)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네.

(성대용 사무국장)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앞으로는 명예퇴직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서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지금 이사회의 회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는데, 하나의 안건으로 30분 정도고요. 이런 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님들께 이 안건을 다 보내드릴 때에는 더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자료를 충분히 법인에 있으니, 사전에 와서 전부다 파악을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시라고 이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하는데, 이 안건만 하나 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사님들께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찬반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곽영교)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 시간 이 안건 가지고 한 시간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 뭐 시간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 것

이사	심 재명	이사	오 연주	이사	

같습니다만은...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것은 이사님들이 받아들이던지, 협조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이사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연대 책임에 관계도 있고 분명히 비밀투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투표한다면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임정섭) 제 생각에 명예퇴직을 해주냐 안해주냐 보다는 일단은 교수님들과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사회 때 올라왔던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 그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를 보완해 주고 아까 우리 이사님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학교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재검토 한 다음에 저희가 아직 8월말 되려면 멀었잖아요. 충분히 기획처장님이 그 부분을 고심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이 이사들한테 와서 자료를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자료는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줘야지 와서 받아보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회 할 때 예전에는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셔서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고 또 여기 와서도 컴퓨터로 우리가 보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덕대학을 이해하는데, 연계가 부족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사 자격으로 자료를 미리 다 받아보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사 박성옥)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걱정하시잖아요. 대덕대학교의 재정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약속을 안 지켰을 때의 리스크는 분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깥에서 대덕대학교를...

(이사 임정섭)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하되...

(이사 박성옥) 그런데 예를 들 면 법인에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고도 만약에 약속을 했으니까 줄 건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처나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 돈이 나가고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아까 장학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금이나 월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을 기획처에서 전체적으로 1년의 예산을 정리해서 본다든지. 부족한 수입은 어디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지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와서 또 비슷하게 자료가 부족함을 이야기한 상태에서 회의가 이렇게 되면 진짜 이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끌게 되고 결국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라도 그렇게 썩, 왜냐면은 이 경우가 학교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개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을 때 오는 문

이사	심재명	이사	은 연주	이사	

제, 저는 대덕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가거든요. 공감가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느냐. 어떤거냐 라고 하는 어디서 재정을 감축해서 이런 부분을 할 꺼냐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이사 곽영교)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한걸음 나간다면 이것을 의결해주되 조건부로, 예전에 우리가 조건부로 많이 해주었잖아요. 조건을 거는데, 그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의결이 된다고 보고, 그 조건은 대학 측에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이 괜찮다. 믿을 만하다든지, 계획이 나와서 신뢰할 만 하다라고 하면 그냥 의결된거고 이건 도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때가서 조건 충족이 안 되었으니까. 뭐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아예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사 박성옥)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빚을 지는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의 월급(보수)가 높고 젊으신 분들의 경우 한 사람의 월급을 갖고 두 명 내지는 세 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수확보율을 높이고 젊은 학교로서의 변신을, 보통 한 30년 된 학교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이 나가서 젊은 수혈에 적은 돈으로 학교를 더 젊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부분과 일시적으로 돈이 나갔을 경우에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한시적으로 의결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준비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번에 경우에는 명예퇴직 제도가 2회(1회지만 2월에 1차 나가신 분들과, 학교의 사정상 늦추어 달라고 부탁드려 2차로 진행하게 된 이번 안건을 의미)로 생겼는데, 요번에는 새로운 것을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있는데, 이 경우가 아까 오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사 안근식) 상황이 변했어요. 명퇴금을 받는거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학교에서 규정을 바꾸지 않기를 바랬죠. 그러나 상황이 남아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예퇴직 이것은 결정한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은 학교 기획처에서 조사해 가지고 와서 법인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OK를 해주고 안 될 때는 못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정년까지 남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명퇴금 주는 것이 청주에 있는 충북 그 대학 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다 없어지고, 옆에 있는 H대학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곽 이사님 말한 대로 기본 명

이사	신재명	이사	은연주	이사	

예퇴직 이것만 허락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은 (보고가) 왔을 때 다음에 추후로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사 오연주) 조건이 달라지는데 누가 허락을 하겠어요?

(이사 박성옥)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제 작년 A대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제도가 생겼어요. 그 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어요. 처음부터. 명예퇴직 제도는 안된다. 그 때 돈 계산을 해보니까.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비용하고, 주는 돈 하고 비교했을 때 차라리 이분들 있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명예퇴직 제도 자체를 한명도 못하게 했어요. 많은 대학이 그 무렵 3~4년 전만해도 명예퇴직 초기에 한 7년 전에 생겼다가 많은 대학이 없앴어요. 그래도 작년에 생겼을 때 어쨌든 그 때 안된다 라고 했었어야 했어요.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논문 쓰는 것도 그렇고, 결과치가 실적도 안 나오고 하니깐 젊은 교수들로 교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나가게 하고 학교가 더 여러 가지 연구나 프로젝트를 따는데 좀 더 유리하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되었던 상황에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학교가 사정이 바뀌어서 2월에 못하게 이분들에게 부탁을 했다가 다시 이제는 아예 조건(학교의 여건)이 바뀌어서 안 된다. 더 추가(부가금)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저는 학교가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다는 걱정이 되네요.

(이사 오연주) 학교라는 것은 약속을 안 지켜서는 안 되는거죠.

(성대용 사무국장) 이사장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네.

(성대용 사무국장) 지금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고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주신 것도 이사님들입니다. 뭐 지금에 와서 그 사정.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대학에서 지급을 하지만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인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나중에 패소가 될 때에는 법인에서 지급을 해야 되요. 지금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법인이 지급할 수 없으면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인 돈으로 내든지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님들께서 연대책임이 되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이 안 되고 되고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원하는 대로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부결을 시키면 부결을 시키신 분이 책임을 지고 가결을 시키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하는 거지. 애매모호하게 해서 동문서답으로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안 되가지고 나중에 못준다 준다 하면은 그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얘기가 그 얘기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주어야 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인건비는 대학에서 지급하지만 손해배상은 법인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법인에서 책임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사님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사 곽영교) 연대책임을...

(성대용 사무국장) 그것은 법인의 상황이니까. 과거에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우리가 이 제도를 송영필 전 부총장이 그 당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내고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그러고 다 금액을 계산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반직이 나갔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때 예산 다 반영을 했죠. 지금 반영되어 있죠? 기획처장님.

(한영철 기획처장) 네. 네.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렇게 다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책임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이사 곽영교) 이것은 책임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이게 책임문제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냥 감당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얼마나 애타겠어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구조조정하고 한 것이 있죠. 조건이 틀려졌다고 만약에 철회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송성환 교무팀장) 만약에 조건이 철회가 된다 라고 하면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 중에 그 조건으로는 명예퇴직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거고, 그 조건으로는 명예퇴직을 안 하시고 정년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건이 변경되다 라면은 변경된 조건으로 처음부터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사 김두헌) 전례가 있나요?

(송성환 교무팀장)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이사 오연주) 학교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때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신임교수 뽑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명예퇴직을 받았던 분들에게 총장님이 편지를 써 줘가면서까지 연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때도 학교가 어떻게 이런 약속을 했을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또 두세 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자체가 없어서 판례가 없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학교잖아요. 학교가 어떻게 약속을 뒤집어요.

(이사 임정섭) 이사님들 지금 우리가 명예퇴직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것이 논점이 아닌 것 같아요. 해주되 이점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보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대안을 제시된 것을 우리가 봐야지 그냥 해놓고서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때는 우리보고 다른 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받아보고 그 때 우리가 논의해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가...

의장(이사장 심재명) 명예퇴직을 구조조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직원들에 봉급문제, 교수님들에 봉급문제와 연동이 되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되지도 않고 1학기 안에. 기획처장님 어때요?

(성대용 사무국장) 제가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폐과가 되가지고 이미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올라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과가 되신 교수님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사 임정섭)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명예퇴직을 승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대용 사무국장) 그러면 일단은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고요. 나중에 차후에 변경을 해서 다시 해주면 되지.

(이사 임정섭)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받겠다는데, 왜 가·부결 그런 걸 하라고 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세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인정하는 안과 조건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직원들에 임금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들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연계해서 승인한다든지.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개죠?

(이사 곽영교) 네.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완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 곽영교) 그 부분에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승인해주되 그냥 승인을 해주고 나면 대학 측에 어떤 대안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라는 것이고 미약한 조건인데, 지금 안 이사님은 얼핏 듣기에 명예퇴직은 인정되지만, 부가금은 인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계산하자.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부

이사	심재명	이사	윤연주	이사	

가금까지 해서 가결은 시켜주되. 우리가 대학교에 한번 하는 것을 받아보자.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사 박성옥) 의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살림에 긴축되었을 때 긴축되면 긴축된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것에서 줄이고 하는 것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의가 되요. 그래서 의결하고 학교 내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은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저거를 보고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 임정섭) 2월말에 명예퇴직을 2월 17일에 올렸어요. 법인에서. 8월말이면 아직도 6월, 7월, 8월 세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사 오연주) 그것은 조건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이미 약속을 그 동안에 저도 그 때 돈도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 받나요.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바뀌어진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이거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촘촘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다시 다음 이사회나 계속해서 한번 두 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얼마나 받나요. 그런 계산까지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사 안근식) 오래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원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을 하시죠.

(이사 오연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의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투표를 합니까? 원하세요. 그거를? 그러면 실명을 공개해 주세요.

(이사 신현동) 아니,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부가금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은 승인을 해주고 부가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 안근식) 저도 그런 뜻입니다.

(이사 곽영교) 그러면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자, 이거는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하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고 바로 의결하시죠.

(성대용 사무국장) 이사장님, 여기 변호사님(김두헌 이사)에 의견도 들어보시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2월달에 시키니 뭘 시키니 하시면서 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4월 1일 교수확보율 때문에 54%를 맞추기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이 어떤 무형의 금품이

이사	신현동	이사	오연주	이사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가) 이익을 본거 아니에요. 교수를 덜 뽑고 만약에 그 동의서까지 다 써줬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잘못하면 공갈로 걸려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이 학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사 김두헌) 일단은 이사님 한분 한분에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투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의장(이사장 심재명) 법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 곽영교)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책일 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것이고.

의장(이사장 심재명)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사 곽영교) 법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러면 실명으로 찬성, 반대를 할까요?

(이사 임정섭)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의장(이사장 심재명) 결정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싫으면 싫다. ...

(이사 오연주) 저는 실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수님들께서 이의제기 하셨을 때 저는 거기에 약속을, 학교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이게 부가금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승낙을 안 해준다는 것이 되는데,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분들이 약속을 학교가 안 지킨 약속에 대해서 법적이든 뭐든 어떠한 형태로 물어올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교육자라는 입장에서도 약속을 어긴다는 자체로도 저는 반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고 어떠한 결정이 나든 저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신현동) 제 생각에는 그거를 상황 변동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데에 그렇게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사 오연주) 약속을 했잖아요.

(이사 신현동)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명예퇴직을 안 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켜주나 그 동안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해보자는데, 그게 무슨 법에 걸

이사	신현동	이사	오연주	이사	곽영교

리고 무슨 배임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임 이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2월 달에 명예퇴직하는 것을 2월 17일 이사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7월 달에 올라와도 되는 건데, 뭘 검토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명예퇴직을 시켜드리고 부가금 때문에 나는 명예퇴직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일시키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다 검토해 보니까. 약속한 대로 다 줄 수도 있다. 주고도 아무런 학교에 문제가 없고 주는 게 낫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다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내일 모레 징역 갈 것처럼 배임이다. 저기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사를 충분히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분 교수님들 중에 과가 없어지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책임을 물으면 묻는 거잖아요. 누가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직접 개인한테 묻는 거잖아요. 이사님들이 반대했으니까. 이사님들 자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개인한테 물을 수 있어요.

(이사 박성옥) 7월이면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학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 5월이면 결정을 해야 해요. 5월말이면 시간표를 짜야 되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래서 8월에, 7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사 임정섭) 그렇게 말이 안 되신다는 것을 2월 달에는 왜 하신 거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더 자세히 받고 싶다는 것을 그것을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뭘 이거를 못해줘서...

의장(이사장 심재명) 잘못된 게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사 임정섭) 이것을 갖고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거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를 주고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말로만 하지 이거 제대로 없어요.

(이사 오연주) 지난번에 다 계산했었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어요. 계산을. 보고한 자료가 다 있는데, 다 알고 있을텐데.

(이사 임정섭) 언제요? 나는 못 봤는데. 지금 제대로 올라올 때 오늘 같은 날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제대로 주셔서 순서대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게 조금 더 받아보고 학교가 전체적으로 더 이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에요.

(이사 오연주)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공개를 하십시오.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의장(이사장 심재명) 교무처에서 올라온 거에요. 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 임정섭) 아니, 이사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을 합니까. 도대체.

(이사 오연주) 요구가 아니라 자료가 있다니까요.

(이사 임정섭) 자료가 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수급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학교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를 검토해 보고 우리가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 때라도 해주겠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에요.

(이사 오연주) 아니, 저는 약속을 한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의논하면 되죠.

(이사 임정섭) 약속은 당연히 지킨다니깐요.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명예퇴직은 이제는 없다고 그런데 뭘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한다고 그러세요.

(이사 오연주) 아니,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다보면 다른 것을 못하잖아요.

(성대용 사무국장) 자꾸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자꾸 2월 달에

(이사 임정섭) 아니, 명예퇴직이 이제는 없다고 하셔서.

(성대용 사무국장) 그것도 다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다 그렇게 되서 말씀을 드렸던 문제고 자꾸 저를 같고 걸고 넘어지는데 또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사 임정섭) 이사장님,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가 아까 요구를 한거에요.

의장(이사장 심재명)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김두헌 이사) 자문을 구했으면 좋은데, 답변하시기 그러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다 미룬일이에요. 이게, 원인이 작년에 송영필 전 부총장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사회에 다 보고했어요. 금액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금액까지 반영한겁니다.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거에요.

(이사 곽영교)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결정하시죠. 우리 이사들이 하는거죠.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17:06경 의장이 정회를 선포함.>

[※ 명예 및 조기희망 퇴직시 부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020학년도 제4회 이사회에서 명예퇴직과 조기희망 퇴직에 따른 부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처리된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이사님들께 추가로 설명함]

<17:10경 의장이 개회를 선포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화시켜주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이사 안근식) 실명 투표하시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투표하실까요?

(참석이사 전원 실명 투표에 찬성함.)

(이사 오연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뒤집은 것을 거수투표로 하는 것이 될까요?

(이사 곽영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구조조정도 없이 그냥 할까봐. 사실 조건을 걸고 싶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학교 측에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이사 곽영교) 찬성하는 분 손들으라고 하세요. 그게 맞겠죠.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곽영교 이사, 심재명 이사장, 박성옥 이사, 오연주 이사 등 4명이 참석에 거수함.)

의장(이사장 심재명) 나머지 기권하시는 분?

(이사 안근식) 네.(기권합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안근식 이사님은) 기권.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이사 곽영교) 그러면 부결인데.

(성대용 사무국장) 나머지 세분은 어떤 의견인가요?

(이사 임정섭) 저는 자료 보완해서 한번 올려주면 그 때에...

의장(이사장 심재명) 지금 표결하잖아요. 반대면 반대다. 기권이면 기권이다. 해주세요.

(간사 백순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오연주 이사님, 박성옥 이사님, 곽영교 이사님은 찬성을 해주셨고 안근식 이사님하고 김두헌 이사님은 기권을 해주셨는데, 신현동 이사님하고 임정섭 이사님 답변을 해주시죠.

(이사 신현동) 저는 여건이 변동됐으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사 임정섭) 저도 그렇습니다.

(간사 백순일) 원안에 반대이신지, 찬성이신지, 기권이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임정섭) 저는 보류에요. 반대가 아니라 보류.

의장(이사장 심재명) 그러면 기권?

(이사 임정섭) 네, 기권.

(이사 안근식) 저도 보류에 입장입니다.

(이사 임정섭) 보류입니다. 저는.

(간사 백순일) 그럼 나머지 의사표현 안 해주신 분들은 기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의결에 대한 실명으로 의사 개진하여 곽영교 이사, 심재명 이사장, 박성옥 이사, 오연주 이사의 찬성 4표, 김두헌 이사, 신현동 이사, 안근식 이사, 임정섭 이사의 기권 4표에 따라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음.

*의장이 제1호의 안은 거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하였기에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이사		이사	

★ 상정된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안)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2호의 안은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신규임용(안)입니다.
의장이 제2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2호의 안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신규임용(안)

임용학교	임용직명	과목	성명	자격증(과목)	임용기간
대전중앙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일본어	경나현	중등2정(일본어)	2021.03.01.~2022.02.28.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3호의 안은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3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최준영 서무과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3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3호의 안에 대하여는 안근식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1,141,033천원
◇ 세출 결산액 : 876,792천원
◇ 세계 잉여금 : 264,241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4호의 안은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사	안 21111	이사	오 연주	이사	

의장이 제4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최준영 서무과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4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4호의 안에 대하여는 임정섭 이사의 동의, 신현동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202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1,073,831천원	1,122,390천원	-48,559천원	-4.3%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5호의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5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5호 안건은 김두헌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5호의 안은 김두헌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523,690천원
◇ 세출 결산액 : 523,368천원
◇ 세계 잉여금 : 322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6호의 안은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6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6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6호의 안에 대하여는 박성옥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202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530,494천원	537,338천원	-6,844천원	-1.3%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7호의 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0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7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7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7호의 안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712,247천원

◇ 세출 결산액 : 709,404천원

◇ 세계 잉여금 : 2,843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8호의 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8호 안건을 발의 후 영유아보육연수원 장혜자 원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8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의장이 제8호의 안에 대하여는 신현동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회계 202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736,005천원	720,353천원	15,652천원	2.2%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9호의 안은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9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중앙고등학교 임효병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9호 안건은 곽영교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9호의 안에 대하여는 곽영교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7,547,460천원
◇ 세출 결산액 : 7,524,610천원
◇ 세계 잉여금 : 22,850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0호의 안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0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이진우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0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김두헌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0호의 안에 대하여는 신현동 이사의 동의, 김두헌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이사		이사	

★ 의결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9,021,174천원
◇ 세출 결산액 : 8,990,729천원
◇ 세계 잉여금 : 30,445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1호의 안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1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1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이진우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1호 안건은 오연주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1호의 안에 대하여는 오연주 이사의 동의, 임정섭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7,658,298천원	6,075,864천원	1,582,434천원	26%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2호의 안은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2호 안건을 발의 후 대전중앙중학교 박상우 행정실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2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2호의 안에 대하여는 안근식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 의결된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결산액 : 3,291,454천원
◇ 세출 결산액 : 3,268,170천원
◇ 세계 잉여금 : 23,284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3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3호 안건을 발의 후 대덕대학교 최병권 행정부총장 겸 행정처장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3호 안건은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3호의 안에 대하여는 박성옥 이사의 동의, 곽영교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액
◇ 수입 결산액 : 61,081,674천원
◇ 지출 결산액 : 51,794,066천원
◇ 미사용차기이월금 : 9,287,608천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4호의 안은 학교법인창성학원 일반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4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4호 안건은 임정섭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4호의 안에 대하여는 임정섭 이사의 동의, 박성옥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	심재명	이사	곽영교	이사	임정섭

★ 의결된 학교법인창성학원 일반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액
◇ 수입 결산액 : 490,242천원
◇ 지출 결산액 : 443,332천원
◇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 46,910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5호의 학교법인창성학원 일반회계 2020학년도 제1차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5호 안건을 발의 후 간사가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5호 안건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김두헌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건부승인을 동의함.

*의장이 제15호의 안은 안근식 이사의 동의, 김두헌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학교법인창성학원 일반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499,280천원	452,371천원	46,909천원	10.4%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6호의 수익용 건물 임차인 장기미수 임대료 대손 처리(안)입니다.

의장이 제16호 안건을 발의 후 법인사무국 최준영 업무담당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이사 곽영교) 이에 대해 대손 처리해주면 우리 이사회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최준영 업무담당) 저희가 임차인의 아들을 수소문해 찾아서 미수금 회수에 대해 접촉을 했는데, 아들이 현재 대학생이고 갚을 능력이 없기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회계상 정리를 하고 가야 수익회계 재무상 나을 것 같다는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대용 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에 정이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임시이사때에 관리책임이 잘못되어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하고 밀려있던 것이 결국에는 임차인이 사망에 이르러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받으려

이사	심재명	이사	곽영교	이사	

고 노력은 했으나, 담당의 말씀대로 상속포기가 돼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사 곽영교) 어쨌든 지난번 임시이사 때에 잘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넘어왔고 결국은 덤터기를 우리가 뒤집어쓰는 것 같아요.

(성대용 사무국장) 그 대신에 재정비를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진행되었다하더라도 과거 15년~20년 이어왔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상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본 것에 약4천만원정도해서 현재 법인에 크게 수익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사 곽영교) 이것도 우리에 책임으로 지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는 것 아닌가요. 배임이나 뭐 이런거...

(이사 임정섭)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지?

(최준영 업무담당) 예,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정산 안하고 미수금을 많이 끌고가면 매년 대손금을 설정하는데, 올해 사망시점으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고 이에 대한 임차인의 사망확인서, 상속포기 판결문 등의 증빙자료를 다 붙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사 곽영교) 솔직히 문제가 없다 있다 이전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는지? 회계상 대손처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간사 백순일) 왜냐하면 임대차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그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6호 안건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6호의 안은 신현동 이사의 동의, 오연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수익용 건물 임차인 장기미수 임대료 대손 처리(안)

대상지	임차인	대손금액	대손사유	비고
창성빌딩 선화동 79-1번지 A동 3층	故 오○○	28,890,670원	임차인의 사망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7호의 안은 학교법인창성학원 수익회계 2020학년도 수입 · 지출 결산(안)입니다.

의장이 제17호 안건을 발의 후 법인사무국 최준영 업무담당이 제안사유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참석 이사의 검토와 논의가 있음.

의장(이사장 심재명)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였고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7호 안건은 김두헌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장이 제17호의 안에 대하여는 김두헌 이사의 동의, 안근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의결된 학교법인창성학원 수익회계 2020학년도 수입·지출 결산액

◇ 수입 결산액 : 699,256천원

◇ 지출 결산액 : 561,672천원

◇ 미사용차기이월금 : 137,584천원

7.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1호의 안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입니다.

이사간 논의하여 간서명 대표로 박성옥, 심재명, 오연주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의장이 기타안건 제1호의 안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은 **박성옥, 심재명, 오연주** 이사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언함.

8. 보고사항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1호의 안은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입니다.

대전중앙고등학교 임효병 행정실장이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를 함.

★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7540,329천원	7,544,484천원	4,155천원	0.06%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2호의 안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입니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이진우 행정실장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를 함.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9,032,295천원	9,031,195천원	1,100천원	0.01%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3호의 안은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3차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입니다.

대전중앙중학교 박상우 행정실장이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를 함.

★ 대전중앙중학교회계 2020학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고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3,360,219천원	3,018,617천원	341,602천원	11.3%

의장(이사장 심재명): 보고안건 제4호의 안은 대덕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정곡관 승강기) 증자 보고입니다.

대덕대학교 최병권 행정부총장 겸 행정처장이 대덕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정곡관 승강기) 증자에 대하여 보고함.

★ 대덕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정곡관 승강기) 증자 보고

◇ 증자내역

소재지(지번)	건물명	승강기 운행구간	증자금액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장동 48번지 외)	정곡관	지하1층 ~ 지상10층	319,508,420원

의장(이사장 심재명): 제5호의 안은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보고입니다.

대덕대학교 송성환 교무팀장이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 학과 구조조정에 자세한 사항(구조조정 기준, 총괄, 입학정원감축 335명, 학과 정원조정, 폐지학과, 학과신설, 명칭변경 및 현행유지 등)에 대하여 보고함.

★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보고

이사		이사		이사	

연번	계열	학과명(2020년)	정원	충원율	학과명(2021년)	정원	충원율	연번	학과명(2022년)	정원
1	군사계열	공병부사관과	40	80.0	공병부사관과	40	80.0	1	전투공병부사관과	40
2		국방물자과	60	83.3	국방물자과	40	100.0	2	국방물자과	40
3		국방탄약과	60	78.3	국방탄약과	40	95.0	3	국방탄약과	40
4		해양기술.특수부사관과	120	69.15	국방해양부사관과	40	100.0	4	국방해양부사관과	40
5		방공유도무기과	60	75.0	방공정보통신부사관과	40	60.0	5	방공무기부사관과	40
6		전투부사관과	40	100.0	전투부사관과	40	97.5	6	전투부사관과	40
7		종포광학과	60	65.0	종포광학과	40	77.5	7	종포광학과	40
8		특전부사관과	40	100.0	특전부사관과	60	96.7	8	특전부사관과	60
9		항공부사관과	60	100.0	항공부사관과	60	63.3	9	항공부사관과	60
								10	군사경찰부사관과	40
10	공학계열	기계설계과	70	47.1	기계설계과	40	45.0		기계설계과	
11		반도체자동화과	60	55.0	반도체자동화과	35	42.9		반도체자동화과	
12		자동자학과	80	100.0	자동자학과	70	82.9	11	자동자학과	70
13		전기과	70	85.7	전기과	70	57.1	12	전기공학과	70
14		전기전자과	40	90.0	전기전자과	40	25.0		전기전자과	
15		정밀기계공학과	60	58.3	정밀기계공학과	35	91.4	13	정밀기계공학과(3년제)	40
16		컴퓨터공학과	70	80.0	컴퓨터공학과	60	46.7		컴퓨터공학과	
17		컴퓨터정보학과	70	58.6	컴퓨터정보학과	40	32.5		컴퓨터정보학과	
								14	컴퓨터관련학과	40
18	자연과학	보건의료행정과	60	70.0	보건의료행정과	40	70.0	15	보건의료행정과	40
19		호텔외식조리과	80	72.5	호텔외식조리과	60	58.3	16	호텔외식조리과	60
								17	반려동물과	40
20	인문사회계열	경찰행정학과	60	96.7	경찰행정학과	40	95.0	18	경찰행정학과	40
21					레저산업학과	40	12.5		레저산업학과	
22		마케팅서비스과	35	65.7	마케팅서비스과	35	40.0		마케팅서비스과	
23		사회복지과	100	60.0	사회복지과	60	65.0	19	사회복지과	60
24		세무공무원과	35	85.7	세무공무원과	35	28.6		세무공무원과	
25		영유아보육과	40	55.0	아동보육상담학과	35	37.1		아동보육상담학과	
26		유아교육과	44	88.6	유아교육과	44	70.5	20	유아교육과(3년제)	44
27		호텔외식.항공서비스과	80	68.75	호텔레저컨벤션과	35	31.4		호텔레저컨벤션과	
								21	경상관련학과	40
28	예체능계열	모델과	45	100.0	모델과	40	100.0	22	모델과	40
29		뷰티과	60	91.7	뷰티과	60	75.0	23	뷰티과	60
30		생활체육과	80	100.0	생활체육과	60	100.0	24	생활체육과	60
31					샵마스터쇼핑과	40	50.0		샵마스터쇼핑과	
32		시각디자인과	40	100.0	시각디자인과	40	85.0	25	시각디자인과	40
33		연극영상과	40	75.0	영상연기콘텐츠과	35	31.4		영상연기콘텐츠과	
34		인테리어디자인과	40	97.5	인테리어디자인과	35	51.4		인테리어디자인과	
35		패션리빙디자인과	40	77.5	패션디자인과	35	54.3		패션디자인과	
								26	웹툰학과	40
합계			1,939	78.2		1,559	65.7			1,224

9. 폐회선언

의장으로부터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이사회에 참석하신 임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폐회선언이 있음.

(2021.05.11. 17:50에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함.)

이사	신재명	이사	오 연주	이사	

2021. 05. 11.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심 재 명 (서명)

이 사 곽 영 교 (서명)

이 사 김 두 헌 (서명)

이 사 박 성 옥 (서명)

이 사 신 현 동 (서명)

이 사 안 근 식 (서명)

이 사 오 연 주 (서명)

이 사 임 정 섭 (서명)

※가나다 순

이사	심재명	이사	오연주	이사	